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3.26

기업 밸류업 공시법인
KRX KOREA EXCHANGE
CORPORATE VALUE-UP

KOSDAQ | 전자와 전기제품

엠플러스 (259630)

사업 영역 확대를 모색하는 이차전지 강소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엠플러스는 25.03.31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旣 발표. 성장성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수립, 지속가능 경영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각각의 세부 실행 계획 피력
- 밸류업 공시 이후 1년 경과하여 이행상황 점검: 2025년 배당성향은 12%로, 기존 제시 목표인 10%를 상회. 매출 성장 목표는 가시적 성과 다소 미흡. 지배구조·ESG 소통은 정성적 특성상 2027~2028년까지 지속 모니터링이 요구됨. 엠플러스 기업가치(최근 1년 주가 흐름)는 뛰어난 결과(76.4% 상승)를 보여주어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서 시장 인정을 받는 모습
- 밸류업 공시 및 이행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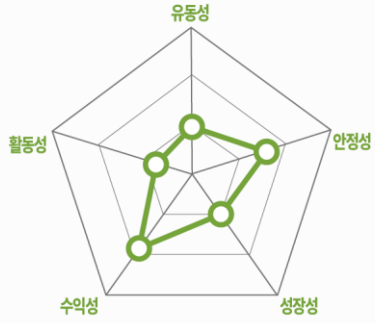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장비 전문기업. 전기차 산업 수요 정체 상황에도 불구 2025년 양호한 실적 시현했으며, 국내 이차전지 장비 기업 중 실적 측면에서 뚜렷이 차별화. 동사는 조립공정 장비 위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전극공정 장비로 사업 확대를 준비 중
- 투자포인트는 1)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 기대, 2) 신사업(전극공정 장비 등) 기대 등
- 리스크 요인은 전기차 산업 캐즘이 예상 외로 지속될 가능성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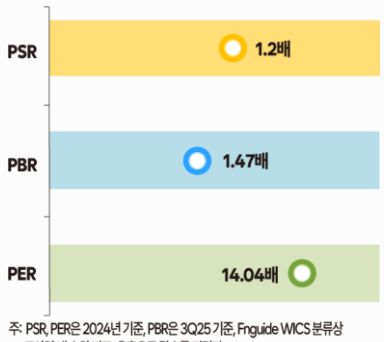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3Q25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엠플러스 (259630)

KOSDAQ
전자와 전기제품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혜빈 hbkim@kirs.or.kr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 2017년 코스닥 상장한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기업. 전극공정 장비로 사업영역 확대를 준비 중. 매출 비중은 제품(이차전지 조립장비 등) 78.9%, 기타(개조, 유지보수 등) 21.1%로 구분(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통 진행 중

글로벌 EV(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보조금 축소, 가격 경쟁 심화,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둔화 중. 20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할 전망. 2021년 이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침투율 상승을 핵심 동력으로 성장. 2025년 기준 전체 중대형 이차전지 출하량 중 전기차용 비중 73.6%, ESS용 비중 26.4% 차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이차전지 산업 측면에서는 아쉬우나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처로 ESS/휴머노이드 부상 중. 한편 다양한 응용처 확대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의 중장기적 수요 증가 전망

어려운 산업 상황 속에서도 엠플러스는 업계 내 실적 측면에서 차별화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842억 원(+43.1% YoY), 246억 원(+143.4% YoY) 기록. 동종 이차전지 장비기업 내 실적 차별화 시현.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989억 원(+8.0% YoY), 271억 원(+10.3% YoY) 전망. 신사업(전극공정 장비, 리튬메탈 전극장비 등) 가시화와 고객 다변화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등이 시장 기대대로 진행된다면 엠플러스 기업가치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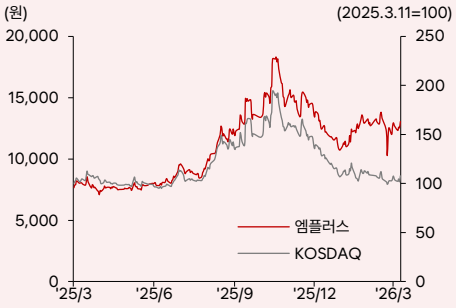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166	3,401	1,287	1,842	1,989
YoY(%)	52.5	191.6	-62.1	43.1	8.0
영업이익(억원)	-99	239	101	246	271
OP 마진(%)	-8.5	7.0	7.8	13.3	13.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52	200	110	206	233
EPS(원)	-1,249	1,629	894	1,689	1,928
YoY(%)	적지	흑전	-45.1	88.9	14.2
PER(배)	N/A	7.1	8.6	7.0	6.9
PSR(배)	1.0	0.4	0.7	0.8	0.8
EV/EBITDA(배)	N/A	4.3	8.4	4.2	3.9
PBR(배)	2.1	1.9	1.1	1.4	1.3
ROE(%)	-28.1	30.6	13.8	22.1	20.9
배당수익률(%)	0.0	0.9	1.3	1.7	2.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3/24)		13,390원
52주 최고가		18,330원
52주 최저가		7,080원
KOSDAQ (3/24)		1,121.44p
자본금		61억원
시가총액		1,61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2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6억원
외국인지분율		10.97%
주요주주	김종성 외 14 인	23.6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5	-8.9	70.4
상대주가	2.4	-30.1	9.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시 법인**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1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되어 2017년 코스닥 상장한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김종성 대표이사는 삼성SDI 전지생산기술 부서에서 이차전지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직접 제품을 생산해 낸 엔지니어이다. 김 대표이사는 삼성SDI 근무 후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컨설턴트로도 재직한 바도 있고, 이후 그는 2003년 엠플러스를 창업하였다.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조립공정 내에서 다양한 필요 장비를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 정하고 설립 초기 사업을 진행했다. 경험 많은 창업자와 경영진의 폭넓은 경험이 사업 초기 성장에 긍정적이었다.

설립 후 해외 이차전지 배터리사와의 협업이 2008년 이루어진 점이 이후 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2008년부터 미국 A123 Systems와 협력, 전기차용 이차전지 조립라인 파일럿 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이차전지 장비 제조/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2009년에 SK이노베이션향 조립라인 파일럿 장비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A123 Systems에 양산라인용 조립장비 4개 라인을 공급하며 고객사로부터 기술적인 인정을 받았다. 2012년에는 SK이노베이션 이차전지 1기 양산 조립라인 장비를 공급하는 한편, 중국 Wanxiang EV에 조립장비를 공급하는 등 점차 해외 고객을 다변화하며 이차전지 장비를 납품하였다. 즉 2010년 이후는 다양한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이차전지 조립장비 관련 수주/납품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동사는 여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중장기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201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국내/외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엠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엠플러스는 2021년부터 해외법인 추가 설립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미국 조지아 법인을, 2022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법인을 각각 설립하였다. 미국 조지아 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핵심 고객과의 사업 협업과 대응에 있어 여러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1~2년전부터 엠플러스는 사업 다각화에 눈을 뜨고 있다. 즉 기존 사업 외에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2024년 미국 모 기업향으로 전고체전지 조립라인 장비를 수주하였다. 이는 이차전지 장비 업계 내에서 전고체전지 관련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을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한편 과거에 엠플러스는 연료전지 관련 장비를 소량이지만 지속 수주하고 판매하는 등 기존제품 외 신제품 사업화에도 꾸준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전극공정 장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이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전기차 산업은 이른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이차전지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에 성장통이 드리웠다. 엠플러스의 2023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401억 원(+191.6% YoY), 239억 원(흑자전환 YoY)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287억 원(-62.1% YoY), 101억 원(-57.7% YoY)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엠플러스는 매출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객 다변화, 제품믹스 개선 등으로 2025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842억 원(+43.1% YoY), 246억 원(+143.4% YoY)을 시

현하며 전기차 산업 캐즘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개선시켰다. 어려운 업황에도 단연 도드라지는 실적을 보여 이는 이차전지 장비기업 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아직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는 어렵다. 중대형 이차전지 분야는 대부분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기대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ESS 산업의 성장으로 전기차 산업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는 있겠으나 전기차 업황 개선 여부가 이차전지 기업들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차전지 업황은 2H26부터 점진적인 개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장비업계 내에서 차별화된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엠플러스가 목표한 사업 다각화와 고객 확대를 좀더 속도감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엠플러스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엠플러스 주요 연혁

설립기(2003~2009) 이차전지 장비시장 진입	성장기(2010~2016) R&D 기반 신뢰 구축	도약기(2017~) 글로벌 고객 확대 및 차세대 시장 선도
2003 회사설립	2010 미국 A123 System 양산 '풀 조립라인' 납품	2017 코스닥 상장
2008 세계최초 전기차용 PILOT 조립라인 수주	2012 현대자동차 Fuel Cell 조립라인 납품	2018 헝가리 부다페스트 법인 설립
2009 SK Innovation PILOT 조립라인 수주	SK Innovation 양산 1기 조립라인 납품	2020 미국 조지아 법인 설립
		2021 스웨덴 스톡홀름 법인 설립
		2023 매출 3,400억 원, 이익불 수출탑
		2024 미국 SA향 전고체 배터리 조립라인 수주
		2025 국내 배터리 대기업향 전고체 조립라인 수주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해외법인 3개사

엠플러스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3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즉 mPLUS Hungary Limited Liability Company, mPLUS-US Corporation, mPLUS Sweden AB이다(동 해외법인 3개사에 대해 엠플러스가 각각 지분 100.0% 보유). 이 3개 해외법인은 각각 헝가리, 미국, 스웨덴 지역에서 旣 판매된 엠플러스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 사업으로 영위한다.

엠플러스는 청주에 위치한 1, 2공장에서 각종 이차전지 장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제조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동사는 두 공장의 제조설비를 통합하여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합 이전 위한 신공장은 당초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행정 절차 상 해당 토지 조성이 지연되고, 전기차 산업 업황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신공장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신공장 건립 및 이전은 초기 계획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정 이연이 전망된다.

참고로 신공장의 위치는 충북 청주시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이고, 부지는 52,914㎡, 공장 건축은 50,012㎡ 로 예상된다. 신공장을 통해 동사는 기존 대비 Capa. 증가가 기대된다. 통합 이전 이후 생산 Capa.는 기존 1, 2 공장 Capa.의 약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1, 2공장 합산 면적은 26,033㎡ 였다. 향후 신공장 면적은 52,914㎡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Capa. 증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엠플러스의 고객 다변화와 기술개발 고도화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엠플러스 매출 비중은 제품(이차전지 조립장비 등) 78.9%, 기타(개조, 유지보수 등) 21.1%로 이루어져 있다(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구체적으로 동사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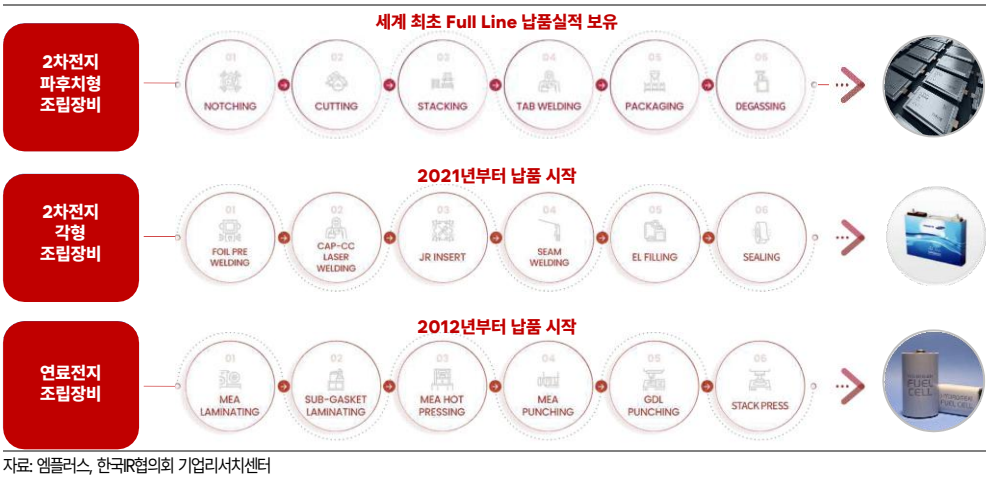
주요 제품은 이차전지 조립장비로, 2021년 이후 기존 파우치형 중심에서 각형 조립장비로 변화

엠플러스 주요 제품은 이차전지 공정장비 중 조립장비이다. 파우치형 조립장비 기준 제조공정 각 장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노칭기 → 스태킹기 → 탭웰딩기 → 패키징기 → 디개싱기 등으로 구분된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우치형 장비 제품 모두를 개발 및 생산, 판매하고 있다.

설립 초부터 2020년까지 동사 주력 제품은 파우치형 조립장비였다. 당시 주 고객들의 이차전지 제품 형태가 파우치형인 점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엠플러스는 각형 조립장비까지 제품 라인업을 다변화시켰는데, 이는 이차전지 시장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각형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 엠플러스의 전체 매출액 중 각형 장비 비중은 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 등으로 인해 2021년부터 동사의 제조 대응은 각형 조립장비 위주로 변화되었다.

동사 주력 제품은 이차전지 조립공정 중 이용되는 세부 장비/제품들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OIL PRE WELDING은 젤리 적층 양극/음극판을 초음파로 용접하는 장비이고, CAP-CC LASER WELDING는 CAP과 CC 또는 FOIL과 CC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장비이다. JR INSERT는 JR 즉 젤리롤을 Can 입구에 맞추고 정확한 위치까지 삽입하는 장비이고, SEAM WELDING은 Can에 삽입한 젤리롤을 레이저 용접으로 밀봉하는 장비이다. 한편 EL FILLING은 밀봉한 셀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장비이며, SEALING은 셀의 주입구를 밀봉하여 완성 셀을 제작하는 장비 제품이다(각형 조립장비 기준).
이 외에 엠플러스는 연료전지 조립장비, 전고체전지 관련 장비도 제품 라인업으로 확보하여 일부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형/원통형 전극공정 장비 등도 출시하기 위해 제품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엠플러스 주요 제품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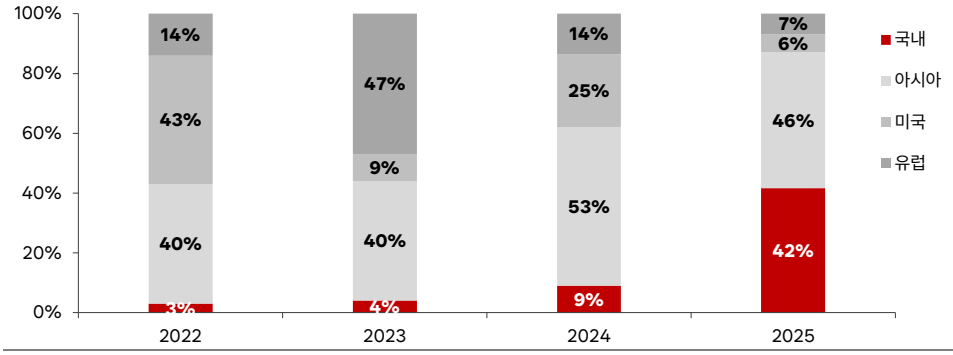
3 주 고객은 국내/외 이차전지 셀 제조기업 및 일부 완성차 기업

엠플러스 주 고객은 국내/외 이차전지 셀 제조기업 및 일부 완성차 기업

엠플러스 주 고객은 국내/외 이차전지 셀 제조기업 및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다. 2025년 연간 매출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객을 구분하여 보면 아시아 고객 46%, 미주 고객 6%, 유럽 고객 7%, 국내 42% 였다(참고로, 2025년 국내 지역 매출 비중에는 모 해외기업의 한국법인향 매출이 상당수 포함됨).

2025년 기준 고객사별 비중은 국내 S사향이 22%, 글로벌 A사향이 22%, 국내 L사향이 5.5%, 기타향이 49% 등이었다(아래 표 참조).

엠플러스 지역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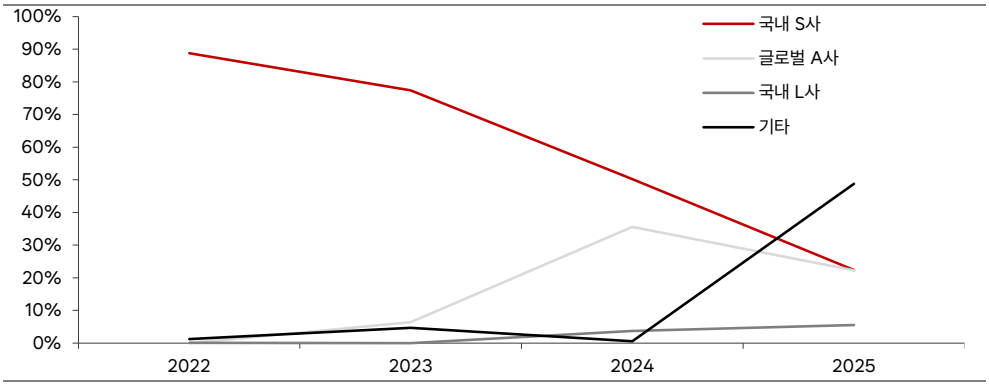
주: 2025년 국내 지역 매출 비중에는 모 해외기업의 한국법인향 매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엠플러스 고객사별 매출 추이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국내 S사	88.8%	77.4%	50.2%	22.4%
글로벌 A사	0.0%	6.4%	35.6%	22.3%
미국 O사	0.0%	0.1%	6.3%	0.0%
국내 L사	0.1%	0.0%	3.7%	5.5%
미국 R사	0.0%	3.2%	1.4%	0.0%
유럽 V사	0.0%	3.2%	1.1%	0.6%
유럽 N사	5.5%	4.2%	0.4%	0.0%
중국 E사	0.5%	0.0%	0.0%	0.0%
유럽 D사	3.5%	0.1%	0.0%	0.0%
국내 완성차 H사	0.4%	0.7%	0.7%	0.4%
기타	1.2%	4.7%	0.6%	48.8%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엠플러스 주요 고객사별 매출 추이(그림)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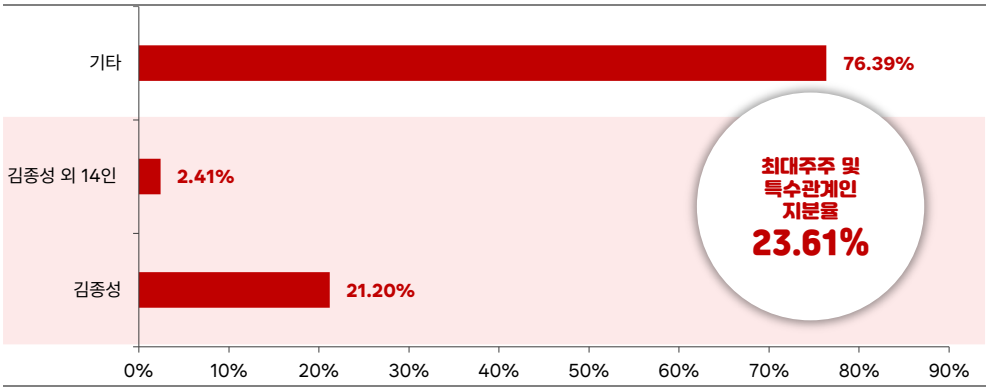
최대주주 등은 김종성 대표이사 외 14인

엠플러스 최대주주 등은 김종성 대표이사 외 14인으로, 지분율 23.61%를 보유

2025년말 기준 엠플러스 최대주주 등은 김종성 대표이사 외 14인으로, 지분율 23.61%를 보유하고 있다.

김종성 대표이사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 학사 및 Univ. of Illinois at Chicago 석/박사 과정을 경험한 이후 삼성SDI에 입사, 삼성SDI 전지생산기술 파트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그는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컨설턴트로도 재직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2003년 엠플러스를 창업한 후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직을 지속적으로 맡아오고 있다.

엠플러스 주주 현황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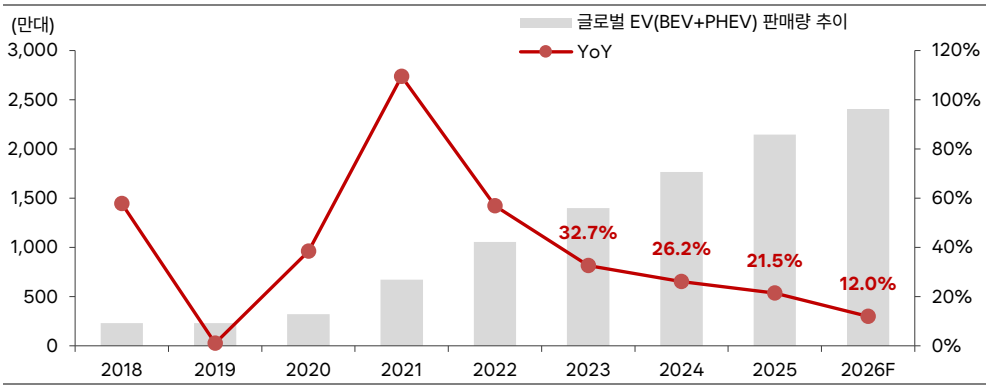
산업 현황

1 글로벌 EV(Electric Vehicle) 산업 현황

20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할 전망

글로벌 EV(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축소와 가격 경쟁 심화,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EV(BEV+PHEV) 인도량은 2,147만 대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성장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이었고 유럽 시장의 수요 반등이 북미의 감소분을 상쇄했다. 20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 보조금 축소, 미국 세제/규제 후퇴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0% 증가한 약 2,380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BNEF).

글로벌 EV 판매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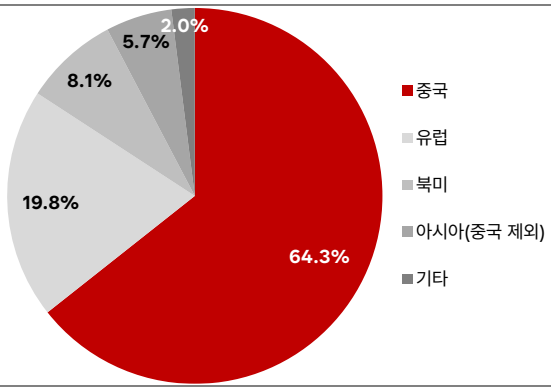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BNEF,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지역 기준으로 중국이 64.3%, 유럽 19.8%, 북미 8.1% 등 차지

이차전지 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지역이 글로벌 판매량 중 6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유럽(19.8%)과 북미(8.1%) 지역이 따르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전동화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판매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시장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신흥 시장이 글로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유럽, 미국 시장 대비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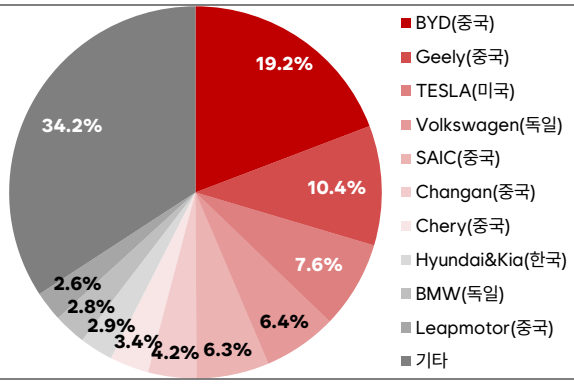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합산 점유율은 46.1%에 달한다. 이는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소재/셀/팩/완성차로 연결되는 견고한 수직계열화를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보다는 비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방어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미국 및 유럽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환경, 정책 변화, 완성차 업체의 전략 및 업체간 경쟁 구도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인도량 점유율



주: 연간 누적 지역별 전기차(BEV+PHEV) 인도량 기준, 자료: SN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



주: 2025년 기준, 자료: SN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완성차 업체의 멀티 파워트레인 전환에 따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4Q25 이후 북미 전기차 시장은 소비자의 BEV(순수 전기차) 선호 약화와 완성차 업체의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정책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한 전기차 보급/지원 확대에 힘입어 미국 지역 배터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고, 셀 업체들도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확보를 위해 대규모 현지 공장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2025.09.30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가격 부담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북미 전기차 수요도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시장조사기관 BNEF는 2025년 미국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글로벌 EV 보급 전망을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2025년 미국 EV 판매는 연간 기준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침투율은 2024년 8.1%에서 2025년 7.8%로 낮아졌다.

미국 IRA 전기차 구매보조금 주요 타임라인

시점	주요 내용	제도상 의미
2022.08.16	IRA 법안 제정	기존 EV 세액공제 제도가 IRA 체계로 전면 개편
2022.08.17~	북미 최종조립 요건 즉시 적용	2022 년 8 월 16 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는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차량만 신차 세액공제 대상
2022.08.16 이후~2022 년말	전환 규정 적용	IRA 시행 전에 구속력 있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
2023.01.01	신규 전기차 세액 공제 본격 시행	제조사별 20 만대 판매 상한이 폐지되고, 대신 구매자 소득요건 및 차량 가격상한 적용
2023.01.01	소득·차량가격 상한 도입	
2023.04.18	배터리 원산지 요건 적용 개시	세액공제가 핵심광물 요건 3,750 달러 + 배터리부품 요건 3,750 달러로 분리 적용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7,500 달러 수령 가능
2024.01.01	판매 시점(Point of Sale) 공제 이전 허용	소비자는 세금 신고 때가 아니라 딜러에게 세액공제를 양도해 구매 시점에 즉시 할인처럼 적용
2024.01.01~	FEOC 배제 1 단계 개시	2024 년부터는 우려외국단체(FEOC) 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들어간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24.05.03~05.06	Treasury/IRS 최종 규정 발표	재무부와 IRS 가 세액공제 이전, 핵심광물·배터리부품 판정, FEOC 관련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
2025.01.01~	FEOC 배제 2 단계 개시	2025 년부터는 FEOC 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25.09.30	신차 EV 세액공제 조기 종료	OBBB 반영 이후 2025 년 9 월 30 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에는 신차 세액공제 미적용

자료: 언론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편,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동화 전환을 중장기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전동화 전환은 미래 생존과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충전인프라 확대, 안전/성능 개선, 대중화 모델 출시 지속 등을 통한 전동화 전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이 이전 대비해서 약화된 상황이다.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HEV(Hybrid Electric Vehicle), EREV(Extended-Range Electric Vehicle) 등을 병행하는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미국 내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투자 구조 및 생산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SK온은 Ford와의 합작법인 BlueOval SK에서 Ford 보유 지분을 전량 유상감자하였고, 생산시설 켄터키 1·2공장은 Ford, 테네시 공장은 SK온이 각각 보유하는 형태로 재편을 결정했다. 이는 생산능력 축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Honda와의 합작법인 L-H Battery Company 소유의 오하이오 공장 건물을 Honda에 매각하여 약 4.2조원 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Stellantis와의 합작법인 NextStar Energy에서 Stellantis 지분 49%를 전량 인수하여 합작 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다. 삼성SDI도 Stellantis와의 합작법인 StarPlus Energy 생산능력 상당 부분을 ESS(Energy Storage System)용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 미국 시장 전동화 전략 변경 정리

업체	기존 전동화 방향	최근 전동화 전략 방향
GM	북미 EV 확대를 전제로 Ultium 기반 EV 라인업과 생산능력 확대	HEV, EREV, 저가/보급형 BEV 확대 가솔린 및 디젤 V8 엔진 생산을 위한 8.9 억달러(약 1.3 조원) 투자 계획
Ford	대형 SUV 와 차세대 전기 픽업까지 포함한 공격적 BEV 확대	하이브리드·EREV·저가형 EV 중심으로 재편 북미 EV 개발의 축을 저가형 Universal EV Platform 으로 집중하고, 대형 트럭/SUV 는 하이브리드·확장형 전기(E-REV) 로 보강 예정
Stellantis	PHEV 와 BEV 를 병행 확대 미국에서의 강한 electrification offensive 를 강조	북미 PHEV 프로그램을 2026 년형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하이브리드·range-extended vehicles 중심으로 전환

자료: 언론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럽 전기차 시장은 탄소배출 규제·충전 인프라 의무화를 기반으로 구조적 성장세이나, 유럽 시장 내 이차전지 업체 간 경쟁은 심화 중

유럽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달리 강화된 환경 규제와 전동화 전환 의무 정책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ACEA에 따르면 2025년 EU의 BEV(순수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88만대 수준으로 전체 신차 시장의 17.4%(+3.8%p YoY)를 차지했다. 동기간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솔린·디젤 합산 비중은 35.5%로 전년 45.2% 대비 낮아지며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43.2%), 네덜란드(+18.1%), 벨기에(+12.6%), 프랑스(+12.5%) 등 주요 시장에서 BEV 등록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단기적인 경기 둔화, 소비 심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전기차 확대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배경은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다. EU는 2025~2029년 승용차 평균 배출 목표를 93.6g/km 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1대당 초과 1g/km마다 95유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업계의 급격한 비용 부담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2025~2027년 기간에는 3년 평균실적 기준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일부 유연화가 이뤄졌다. AFIR(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은 회원국에게 BEV 1대당 1.3kW 수준의 공공 충전 출력 확보를 요구하고, 일정 간격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제준수 압력과 사용자편의 개선이 함께 전기차 수요를 받쳐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 시장의 우호적인 수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내 이차전지 업체 간 경쟁은 심화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배터리 조달 전략에서도 비용 효율성을 한층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MW, Tesla 등 주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셀 업체의 신규 수주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우려도 있다.

유럽 주요 EV 모델 배터리 공급사 현황

완성차 업체	모델	주요 배터리 공급사
Tesla	Model Y	Shenzhen BYD
	Model 3	중국 생산(CATL, LGES)
Skoda	Elroq	LGES
	Enyaq Iv	LGES
Renault	Renault 5	AESC
VW	ID.3	LGES
	ID.4	LGES
	ID.7	CATL
Kia	EV3	한국 생산(LGES)
Audi	Audi Q4 e-tron	LGES
	Audi Q6/Q6L	CATL
BMW	iX1	CATL
Volvo	EX30	중국 생산(Sunwoda, Zeekr Power)

자료: 언론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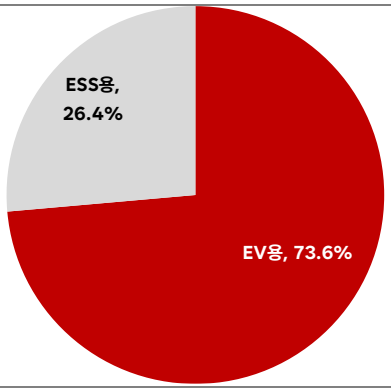
2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현황

2025년 글로벌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처 비중은 전기차용 73.6%, ESS용 26.4%

시장조사기관 Fortune Insighs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25년 1,348억 달러에서 2034년 3,0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 전 성장률 기대/전망 대비는 약해졌지만, 아직 향후 9~10년 동안 연평균 9.54%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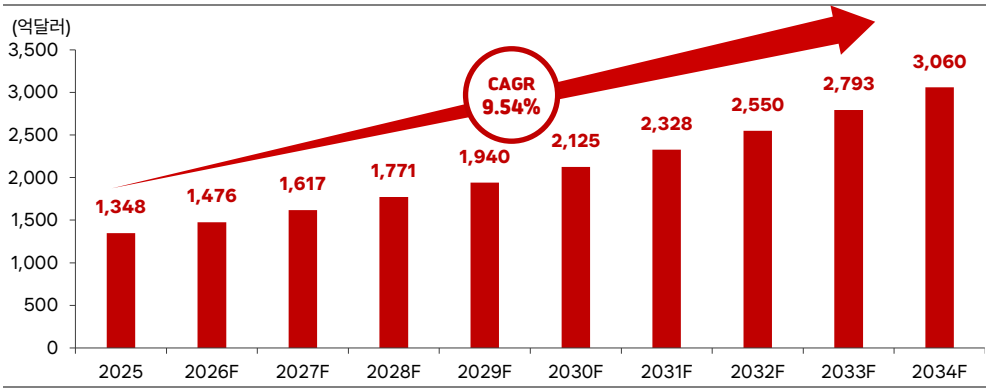
2021년 이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침투율 상승을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왔다. 2025년 기준 전체 중대형 이차전지 출하량 중 전기차용 비중이 73.6%, ESS용 비중은 26.4%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요 편중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완성차의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내연기관차량의 핵심 부품이던 엔진이 구동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는 흐름이 강화되자, 국내 기업들은 주행거리와 출력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을 확대해왔다. 반면 ESS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대비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제품으로 ESS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업계 기대를 하회하고 ESS용 배터리 수요는 견조한 바,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은 ESS용 수요에 주목하며 관련 대응 노력을 통해 매출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처별 비중



주: 2025년 기준, Gwh 기준, 자료: SN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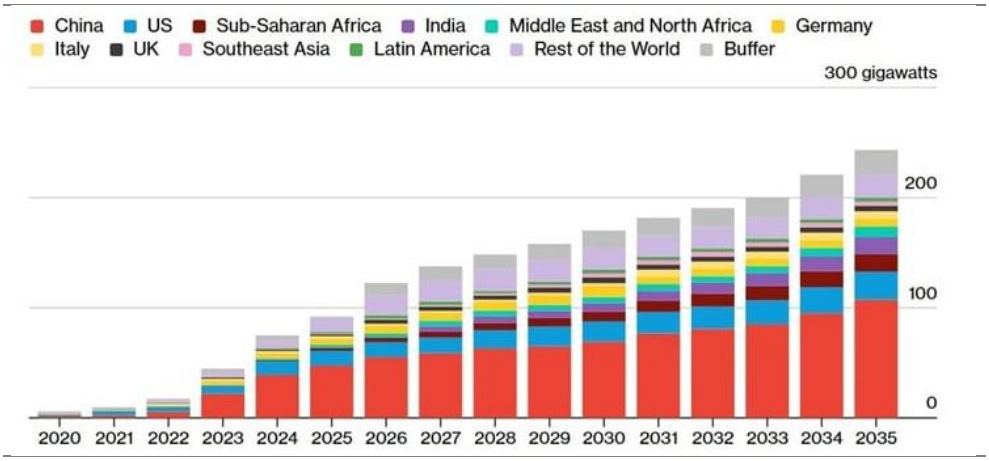
자료: Fortune Insigh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차전지의 새로운 수요처: ESS 및 휴머노이드 로봇

최근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의 성장 둔화와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도드라지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전기차 중심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단기 가동률 방어를 위해 전기차 이외의 시장으로 사업 영역/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그 중 ESS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교체와 증설을 제외한 신규 설치 용량만을 기준으로도 2035년까지 연평균 10%에 근접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 공장을 ESS용 LFP 생산라인으로 전환했고, SK온의 경우 2026~2030년 7.2GWh 규모 ESS용 LFP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EV 라인의 ESS 라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은 아직 절대 수요 규모는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고부가 배터리 시장의 주요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1대당 평균 배터리 탑재 용량은 2025년 1.35kWh에서 2030년 1.98kWh, 2035년 2.6kWh, 2038년 2.74kWh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총 탑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반고체를 거쳐 전고체 배터리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의 주요 적용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휴머노이드가 비교적 좁은 공간 안에 높은 에너지밀도, 긴 작동시간, 경량화,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ESS 신규 설치 용량 및 추이 전망



주: 2025년 이후 전망치, 자료: BNEF,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ESS, 로봇 등 다양한 응용처 확대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의 중장기적 수요 증가 전망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완성차의 전동화 전환 확산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고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6년까지 연평균 33~57%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고체 및 반고체 배터리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SDI가 파일럿 라인 구축을 통해 전고체전지 양산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무음극 기반 전고체 배터리와 반고체전지 생산 체제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SK이노베이션(SK온)은 황화물계와 고분자·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병행 개발하고 있고, 현대차그룹 역시 모듈 단위의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스타트업 중심으로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이 활발하며, 일본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장기 상용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CASIP(중국 전고체전지 산학연 협력혁신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고체 배터리 상용화도 빠르게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본격 상용화/양산 이전 단계에 있으나,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과 생산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핵심 축/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ESS, 로봇 등 다양한 응용처 확대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의 중장기적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

투자포인트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현 시점 이행상황 점검

엠플러스는 2025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

엠플러스는 25.03.31 밸류업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발표했다. 성장성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수립, 지속가능 경영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각각의 세부 실행 계획을 시장에 전했는데, 먼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28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50% 이상 제시

엠플러스의 2024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1,287억 원이었다. 동사는 2028년 연간 매출액 목표치를 7,000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2024~2028F 연평균 52.7% 성장 수치이다. 이러한 매출 확대를 위해서 동사는 1) 이차전지 셀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는 수주영업 적극 대응, 2) 고객 설비 개조에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전담 조직 운영, 3) 유럽/일본/미국 등 글로벌 고객사 개별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 추구, 4) 신사업 수주 노력 등 실행 계획/전략을 제시하였다.

2) 배당성향 최소 10% 이상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제시

엠플러스는 2025~2027F 기간 배당성향(연결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최소 10%로 하고,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2024년 자사주 취득분(약 10억 원) 소각과 향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하기로 했다.

3)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엠플러스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2024년 기준 60%(15개 중 9개)에서 2027년 기준 80%(15개 중 12개 이상)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시했다(아래 표 참조). 즉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통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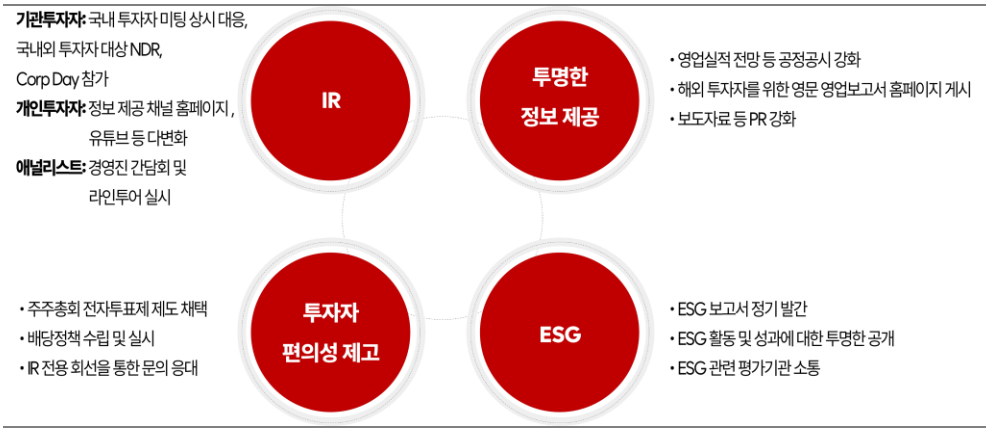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핵심지표		2024년	2027년
주주(4개)	주주총회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 개최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	X	○
이사회(6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X	X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
	집중투표제 실시	X	X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X	○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
내부감사기구(5개)	독립적인 내부감시부서의 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9개/15개) 60%	(12개 이상/15개) 80% 이상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그 외에 엠플러스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IR 강화, 투자자 편의성 제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하여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엠플러스 소통 계획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밸류업 공시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

2025.03.31 既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밸류업 공시 후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현 시점 동 공시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43% 성장으로 선전했으나 목표(50% 이상)에 소폭 미달, 2026년 고성장 재현 어려울 전망이어서 2028년 7,000억 원 매출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가 관건

2028년까지 매출액 성장 목표(연평균 52.7% 성장하여 2028년 연간 매출액 7천억 원 달성) 관련하여 살펴보자. 2025년 엠플러스는 매출액을 전년 대비 43.1% 성장시키며 캐즘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50% 이상 성장 목표에는 소폭 미달하였다.

당사 리서치센터는 2026년 연간 매출액 전망치로 1,989억 원(+8.0 YoY)을 전망한다. 즉 2026년은 일시적으로는 큰 성장은 쉽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5년 엠플러스는 여타 국내 이차전지 장비기업 중 단연 돋보이는 매출액 및 이익 성장을 보였으나, 산업적 상황 및 수요, 고객 동향 등으로 인해 2026년에는 2025년과 같은 고성장은 다소 어렵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2028년 연간 매출액 7천억 원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既 제시한 4가지 실행 계획/전략이 향후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배당성향 12%(목표 10% 상회), 배당기준일 사전 확정, 자사주 소각 완료 등 주주환원 관련 공시 목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히 이행

배당성향 최소 10% 이상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제시 관련하여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엠플러스는 26.03.09 공시를 통해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2025년 1주당 배당금은 200원(배당금 총액 23.7억 원)으로 발표되었고, 배당기준일은 26.03.31로 언급되었다. 한편, 2024, 2025년 각각 취득 자사주(각 10억 원 규모)는 모두 소각이 완료되었다(25.06.18 공시, 26.01.20 공시 참고).

既 제시된 배당성향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자사주 취득분 소각 목표는 이로서 양호히 달성되었다. 즉 2025년 배당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12% 비중으로, 제시 목표인 10% 이상을 상회했고, 배당기준일은 이번 공시를 통해 날짜가 확정(26.03.31)되었으며,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26.03.24) 후 1개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다.

적극적 IR 활동은 긍정적

이 밖에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관련은 아직 2027년까지 변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다만, IR담당자와 해당 임원이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밸류업 공시 후 1년간 엠플러스 기업가치(주가)는 크게 성장

한편, 밸류업 공시 이후 지난 1년간 기업가치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2025.03.31 밸류업 공시 후 엠플러스 기업가치는 크게 성장했다. 엠플러스 주가는 2025.03.31 (종가) 7,590원에서 2026.03.24 종가 13,390원으로 변화하였다. 즉 약 1년동안 주가가 76.4% 상승했다. 2025년 4분기초 시기(2025.10.24)에는 한때 장중 고가로 주가가 19,00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엠플러스 기업가치는 밸류업 공시 이후 뚜렷하게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기업가치 상승은 2025년 실적 호조와 밸류업 공시 및 이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목과 신뢰를 받았던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배당·주주환원은 이행 양호, 매출 성장 목표는 분발 필요, 지배구조·ESG 소통은 정성적 특성상 2027~2028년까지 지속 모니터링이 요구

결론적으로, 엠플러스 밸류업 공시 관련 이행은 투자자들이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2028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매출액 성장 목표는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분발이 요구되는 반면, 배당성향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사항은 잘 준수되고 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관련 사안은 2027년말까지 그 진행을 지켜보아야 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IR 강화, 투자자 편의성 제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소통 건을 평하면 다음과 같다. IR담당자와 해당 임원이 IR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점은 다각도로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엠플러스 기업가치(최근 1년 주가 흐름)는 旣 언급한 대로 뛰어난 결과(76.4% 상승)를 보여주어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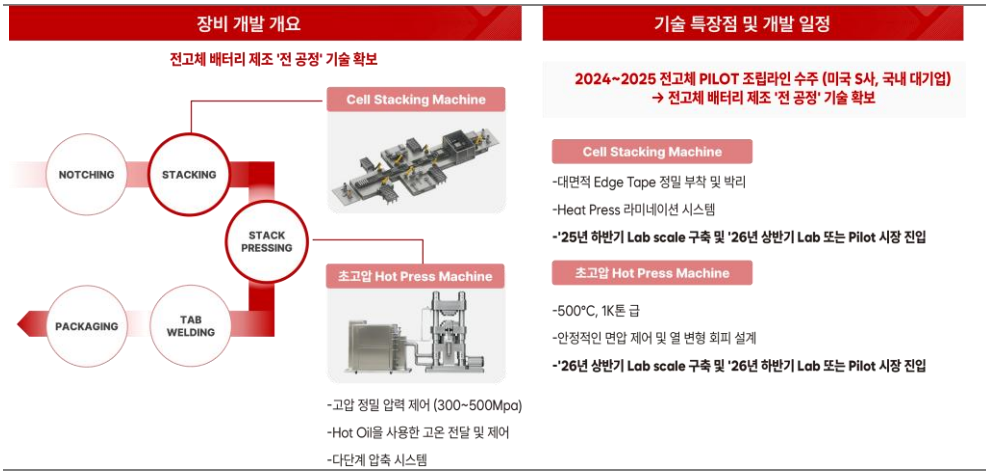
2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 기대

전고체전지 조립장비 수주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기대

엠플러스의 두 번째 투자포인트는 기존 파우치형/각형 조립장비를 넘어 전고체전지 조립장비 제품 영역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엠플러스는 전고체전지 제조 전 공정에 요구되는 기술을 확보하고 전고체전지 조립장비 제품 일체를 旣 개발했다. 동사는 전고체전지 조립장비 관련하여 일부 고객사들에 파일럿 라인 장비를 납품했고, 다수 고객사들에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 해외 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고체전지 파일럿 라인 장비를 수주하였고, 2025년 3월초 국내 이차전지 모 기업으로부터 전고체전지 조립장비를 수주하였다.

전고체전지는 기존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전고체 조립장비는 Roll Press, 면압 Heat Press나 WIP(Warm Isostatic Press) 기술 등을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압착해야 한다. 엠플러스는 동 수주를 통해서 Roll Press, 면압 Heat Press 방식의 전고체전지 조립 기술뿐만 아니라, WIP 방식의 전고체전지 조립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엠플러스 전고체전지 조립장비 개요 및 특징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구개발인력 비중, 국내/외 보유 특허권 등을 통해 동사 기술력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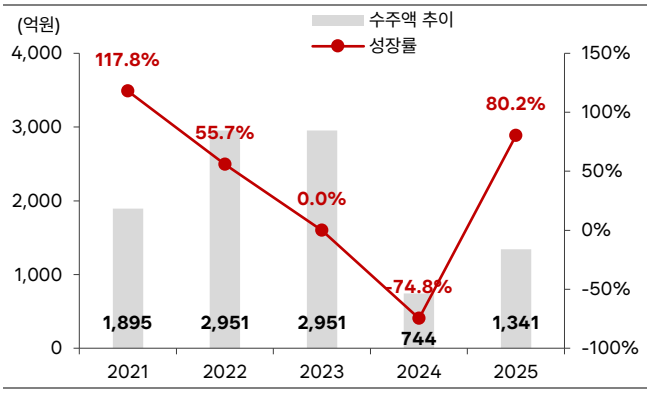
엠플러스는 변화되는 산업 트렌드와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다. 이는 동사의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다. 엠플러스는 초기 주 고객의 요구에 따라 파우치형 조립장비 개발 및 생산/판매에 주력했으나, 시장 트렌드가 2021년 이후 바뀌며 각형 조립장비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빠르게 반영하여 각형 조립장비를 개발, 제조/판매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배터리 셀 기업 삼성SDI 출신의 여러 경영진의 개발능력과 연구개발 실무인력들의 역량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

엠플러스의 전체 임직원 중 연구개발인력 비중은 52%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사가 보유한 국내/외 등록된 특허권은 2025년말 기준 97건으로, 이를 통해서도 동사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 가능하다.

경쟁사 대비 높은 수주잔고 보유, 영업력과 기술력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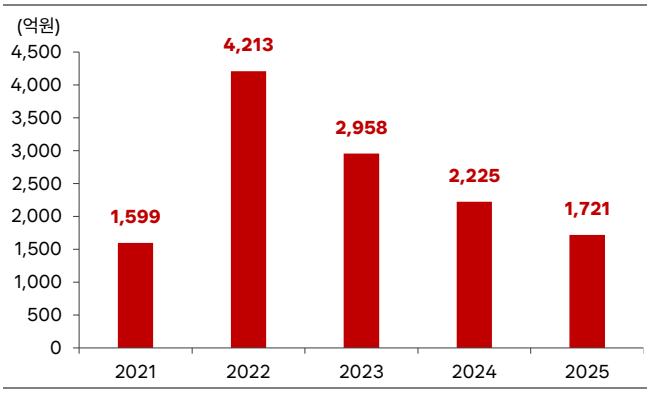
엠플러스는 기술력도 높지만 영업능력도 양호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주잔고 추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엠플러스의 2024년말, 2025년말 기준 수주잔고는 각각 2,225억 원, 1,721억 원이었다. 이는 주요 경쟁사인 하나기술,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의 평균 수주잔고를 상회한다. 3Q25말 기준 사업보고서 상 각사 수주잔고 수치를 살펴보면, 하나기술 미표기, 필에너지 646억 원, 유일에너테크 631억 원이었다. 이렇듯 엠플러스는 경쟁사들 대비 높은 수주잔고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엠플러스의 영업능력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수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엠플러스 연도별 수주액 추이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엠플러스 연도별 수주잔고 추이



주: 수주잔고는 연말기준,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신사업(전극공정 장비 등) 기대

동사가 준비 중인 주력 신사업 2가지

엠플러스는 중장기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기존 조립장비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동사가 준비 중인 주력 신사업 2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극공정 장비는 빠르면 2H26 파이로트 수주해 1H27부터 매출 인식 가능할 전망

1) 전극공정 장비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전극공정 관련 다양한 장비를 연구개발 중이다. 동사는 슬러리 제조(믹싱)을 제외한 코팅, 건조, 압연(롤 프레싱), 슬리팅, 드라잉, 전극자동공급 등 全 전극공정 주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건식 전극공정 장비는 차세대 배터리 공정 전환과 맞물려 의미 있는 신규 사업 기회로서 평가될 수 있다. 엠플러스는 건식 전극공정 관련 소재업체와 장비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 분야는 아직 전세계적으로도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한 바, 기술 연구와 관련 기업간 협력이 차후 양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보인다.

현재 엠플러스는 건식 전극공정 장비 관련 랩 스케일의 수주는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참고로 수주는 크게 랩 스케일 수주, 파이로트 수주, 양산 수주로 구분됨), 빠르면 2H26에 파이로트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관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다. 관련하여 의미있는 매출액은 1H27부터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엠플러스 전극공정 장비



자료: 엠플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튬메탈 전극장비는 2026년말 개발 완료 기대

2) 리튬메탈 전극장비

이차전지 관련 미래 기술/제품으로 리튬메탈전지가 있다. 리튬메탈전지 제품 컨셉을 살펴보면, 리튬메탈전지는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재로 기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흑연이 아닌 리튬 금속을 이용하는 전지이다. 리튬 금속은 현재 알려진 음극물질 중 최상급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산화 환원 전위가 낮아 경량화/대용량화가 필요한 이차전지 산업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물론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상용화 시에도 단점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점으로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언급된다. 이는 배터리 사용 과정에서 리튬이 음극 표면에 쌓이며 나뭇가지 형태를 띤 결정체를 만드는 현상으로, 전지효율과 수명을 떨어뜨리고 화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데, 리튬이온전지보다 짧은 제품 수명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선두권 이차전지 셀 업체들은 이차전지 경량화, 대용량화를 위해 리튬메탈전지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목표하고 있다.

엠플러스는 리튬메탈 전극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동사가 개발 중인 리튬메탈 전극장비는 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전지의 핵심 음극인 리튬메탈 금속 전극을 제조하는 장비이다. 엠플러스 리튬메탈 장비 기술은 잠재적인 경쟁사 제품 대비 몇 가지 기술적 강점을 확보했고, 2026년말까지 상용 제품 개발을 완료하려 노력 중이다.

동 제품은 기술적으로 아직은 상용화 되지 않은 도전적 사안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품 상용화 관련 세부적인 일정이나 수주 획득 시기, 고객사 및 잠재적 고객사 현황 등을 언급하거나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를 상용화할 시에는 이차전지 업계 내에서 여러 고객 니즈는 충분하다고 파악되어 향후 상용화 여부를 투자자들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추진하던 스마트팩토리, 로봇 사업은 잠정 연기하며 사업화 여부 고려할 예정

참고로, 엠플러스는 이외에 스마트팩토리, 로봇 사업도 신사업으로 2025년에 추진을 한 바가 있다. AMR 즉 자율주행 물류로봇을 이용하여 제조 공정간에 이차전지 셀 자재를 자동으로 이동/공급해주는 시스템 설치 사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들인 이차전지 장비 사업과는 매우 다른 사업 영역이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의외성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스마트팩토리, 로봇 사업을 사업화하려 했던 것은 독일 S사와의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초 목표는 2026년 상반기부터 AMR 제품 및 전반적인 시스템을 판매하려는 계획도 세운 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계획은 잠정 연기되었다. 좀더 기술 및 사업 경쟁력 여부를 따지고 보다 우선적인 신사업들을 펼친 이후 스마트팩토리, 로봇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화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직 동 사업의 사업화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AMR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일부 사업 영위에 활용하며 추후 사업화 여부를 테스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5년 연간 실적 리뷰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842억 원(+43.1% YoY), 246억 원(+143.4% YoY) 기록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842억 원(+43.1% YoY), 246억 원(+143.4% YoY)을 기록했다. 이차전지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에 반해 매우 양호한 실적 시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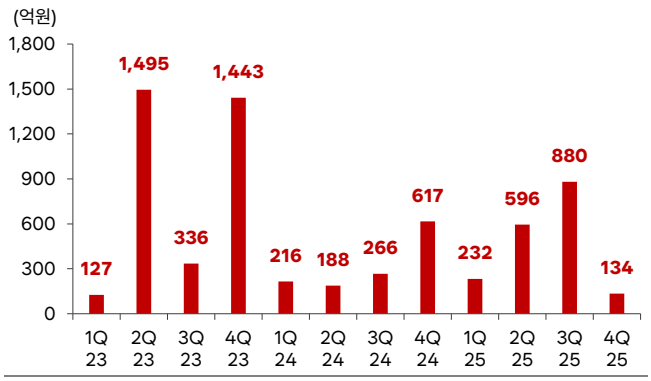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은 전년(1,287억 원) 대비 43.1%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해외 고객 중심으로 고객 다변화가 진행되고, 일부 고객들의 개조 투자가 활발해지며 매출액이 성장하였다. 업황 때문에 미루어졌던 장비 셋업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기존 가장 큰 고객인 국내 모 고객의 경우 2024년 매출액 비중 50.2%에서 2025년 22.4%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장기적인 모 전략 고객의 매출 비중은 2024년 3.7%에서 2025년 5.5%로 점진 증가하였다(향후에도 단계적인 증가 추세를 기대).

수출과 국내 매출을 나누어서 비교/분석해 보면, 2025년에는 표면적으로 국내 매출이 수출보다 더 늘었다.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매출은 2024년 113억 원에서 2025년 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출 매출은 2024년 1,175억 원에서 2025년 1,35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다. 그러나 2025년 국내 매출에는 모 해외기업의 한국법인향 매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참고(국내 매출이 늘었다기 보다 실질은 수출 매출이 증가한 것)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101억 원) 대비 143.4% 성장하였다. 매출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수익성 제품 중심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참고로 2025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78.9%, 7.8%를 보여 2024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각각 80.7%, 11.5%) 대비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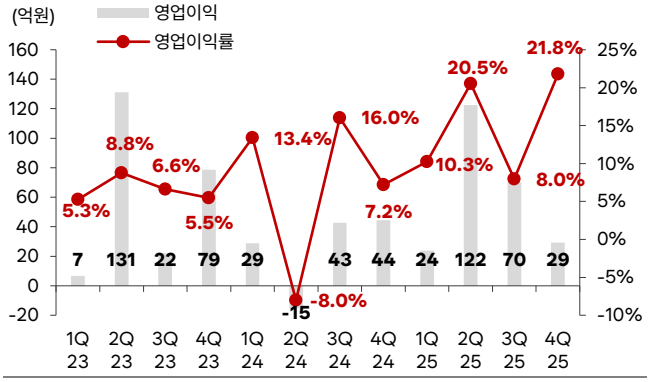
4Q25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34억 원(-78.3% YoY), 29억 원(-34.3% YoY)을 기록했다. 전년(4Q24) 매출액, 영업이익 수치(각각 617억 원, 44억 원)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분기 실적 변동성이 일반적으로 높은 장비업체들의 특성은 고려해야 한다. 4Q25에 전반적인 실적은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수익성은 높게 시현하여 이는 긍정적이었다. 4Q25 영업이익률은 22%를 시현하여 전년 동기 영업이익률(7%) 대비 높았다.

분기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자료: FnGuide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자료: FnGuide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F 실적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989억 원(+8.0% YoY), 271억 원(+10.3% YoY) 기대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989억 원(+8.0% YoY), 271억 원(+10.3% YoY)으로 예상한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 장비 매출액은 전년(1,453억 원) 대비 8.5% 증가한 1,577억 원으로 전망한다. 업황 때문에 미루어졌던 고객들의 장비 셋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매출로 인식되고,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에 기반하여 고객 발주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타 매출액은 전년(389억 원) 수준과 유사한 412억 원으로 전망한다. (설비)개조 및 A/S 매출은 꾸준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제품 및 일부 신제품 출하가 좀더 도드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객별로 살펴보면, 2024년까지 매출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며 고객 내 1st 비중을 차지했던 국내 S사 매출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20% 중반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다변화된 해외 고객들의 주문 증가로 기타 고객군의 매출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40% 중후반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내 모 고객향 매출의 점진적 증가 추세를 기대한다. 향후 신사업(전극공정 장비 등)들이 가시화될 시 고객 다변화는 좀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026년 매출 추정은 보수적인 기조로 예측했다. 2H26 이후 이차전지 업황의 개선 정도를 현 시점에서 확신할 수는 없기에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시각을 실적 추정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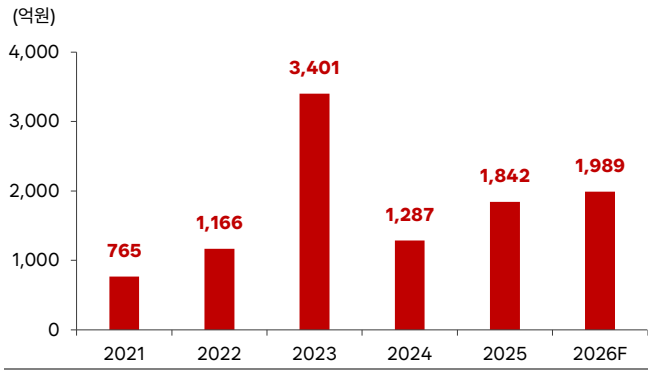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71억 원으로 전망된다. 2026년 매출액 성장을 기대하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어서 영업이익의 증가도 역시 제한적일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3%대를 전망하였다. 수익성은 판매되는 제품들의 제품믹스와 2H26 이차전지 업황의 개선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속되는 제품믹스 고도화로 인해 국내 이차전지 조립장비 업계 내 가장 우수한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166	3,401	1,287	1,842	**1,989**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1,048	3,081	832	1,453	**1,577**
기타	118	319	455	389	**412**
영업이익	-99	239	101	246	**271**
지배주주순이익	-152	200	110	206	**233**
YoY 증감률					
매출액	52.5	191.6	-62.1	43.1	**8.0**
영업이익	적지	흑전	-57.7	143.4	**10.3**
지배주주순이익	적지	흑전	-45.1	87.9	**12.9**
영업이익률	-8.5	7.0	7.8	13.3	**13.6**
지배주주순이익률	-13.1	5.9	8.5	11.2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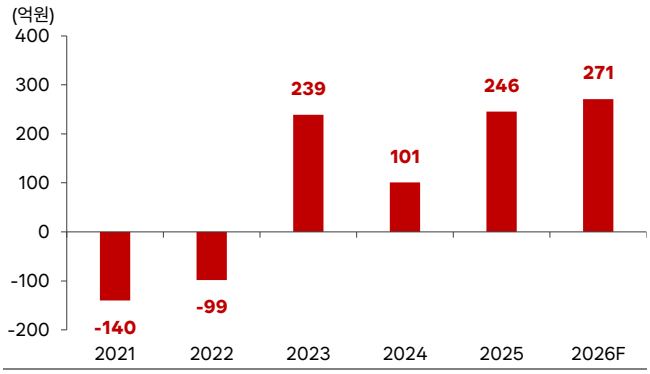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년 PBR 1.3배로 거래 중

동사 PE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시장 대비 할인되어 거래

2026년 3월 24일 기준 엠플러스 시가총액은 1,617억 원 수준이다. 2026년 엠플러스 예상 PBR은 1.3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3.3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Peer로 하나기술,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를 선정

엠플러스는 이차전지 장비 제조/판매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상장 기업은 하나기술,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동사의 Peer로 하나기술,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하나기술을 제외한 Peer 기업의 컨센서스가 부재하며 현 시점 상 필에너지를 제외하고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업간 비교는 2025F PBR 측면으로 진행하였다(Peer 3개사의 경우 2025년 말 잠정 실적 기준 PBR).

2025년 비교 4개사의 PBR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BR 1.3배 VS 하나기술 PBR 2.1배 VS 필에너지 PBR 2.1배 VS 유일에너테크 2.3배). 엠플러스는 하나기술,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 대비 상대적으로 PBR 할인을 받고 있다.

하나기술의 2025년 PBR은 2.1x(ROE -6.5%)로, 수익성 부진에도 엠플러스 대비 할증 거래 중이다. 할증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국내 유일의 전공정 턴키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1,576억 원(매출 대비 168%) 등 대형 수주를 확보하며 2026년 흑자 전환 가시성이 높아졌고, 2) 국내 배터리 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를 동시 고객사로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서 수주 공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3) 반고체 배터리 라인 세계 최초 턴키 수주 레퍼런스 및 전고체용 스태킹·WIP 장비 선행 개발 완료로 차세대 배터리 전환기 대응 가시성이 높다. 참고로 하나기술의 2025년 잠정 실적은 매출액 938억 원(-0.4% YoY), 영업이익 -5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했다.

필에너지의 2025년 PBR은 2.1x(ROE -12.5%)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단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정밀가공 기반의 공정 기술력과 삼성SDI와의 전략적 관계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5년 필에너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2억 원(-88.4% YoY), -222억 원(적자전환 YoY)으로, 엠플러스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SDI는 필에너지의 2대주주(2025년말 기준 지분율 13.98%)이며, 인터배터리 2026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 SolidStack과 각형 배터리 브랜드 PrismStack을 동시 공개하며 2027년 양산 체제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BBU(Battery Backup Unit, 배터리 백업 유닛) 및 북미향 ESS 제품군 확대로 삼성SDI의 설비 투자 사이클 개화가 기대되는 만큼, 주요 공정 장비 공급사인 필에너지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기대감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필에너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삼성SDI의 차세대 배터리 투자 사이클에 대한 선반영 성격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일에너테크는 Notching, Stacking, Tab Welding 등 2차전지 조립공정 핵심 장비에 특화된 업체로, 2025년 PBR은 2.3x(2025년 잠정실적 기준 ROE -37.7%) 수준이다. 유일에너테크의 최근 주가는 연중 저점권에 머물고 있으며, 유

상증자 등 자금조달 이슈까지 겹치면서 단기 투자심리도 부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 대비 높은 PBR을 받고 있는 것은 지속된 적자로 자기자본이 축소되면서 PBR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산술적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일에너테크는 2025년 잠정 실적 기준 매출액 600억 원(+0.5% YoY), 영업이익 -46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했으며, 최근 4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매출액(십억원)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5,781	4,437,852	3,745,705	3,041,496	3,464,238	-	19.0	8.8	-	1.8	1.5
코스닥	1,162	617,810	333,951	94,745	112,628	-	55.1	31.1	-	4.0	3.3
엠플러스	**13,500**	**162**	**129**	**184**	**199**	**8.6**	**7.0**	**6.9**	**1.1**	**1.4**	**1.3**
하나기술	26,700	206	94	94	194	N/A	N/A	19.1	1.4	2.1	2.3
필에너지	14,290	299	285	332	-	19.7	N/A	N/A	2.0	2.1	N/A
유일에너테크	1,018	54	60	60	-	N/A	N/A	N/A	1.1	2.3	N/A
동종업종 평균						**19.7**	**N/A**	**19.1**	**1.5**	**2.2**	2.3

주: 2026년 3월 24일 종가 기준.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의 2026F 컨센서스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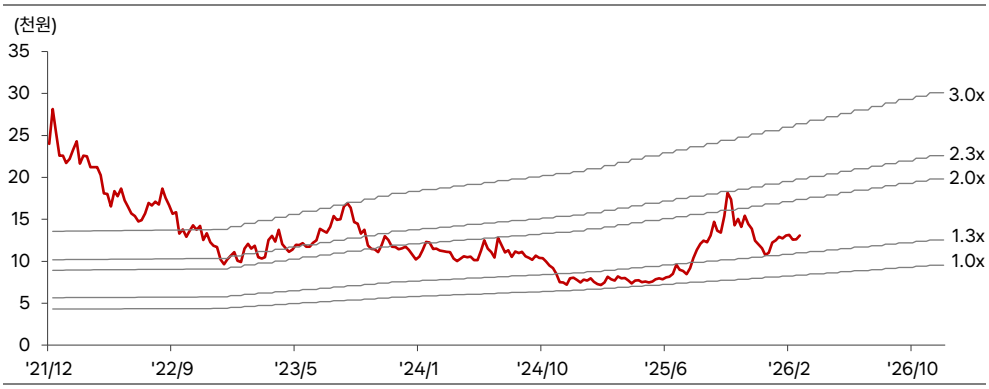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엠플러스 주가는 2025년 연간 약 54% 상승

엠플러스 주가는 2025년 연간 약 54% 상승했다. 이는 1) 2024년 약 33%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고, 2)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개선(2024 영업이익 101억 원 VS 2025 영업이익 246억 원)된 만큼 증익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2025.07월 이후 크게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신사업(전극공정 장비, 리튬메탈 전극장비 등) 가시화와 고객 다변화에 따른 실적 개선,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등이 시장 기대만큼 진행된다면 엠플러스 기업가치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엠플러스 PB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전기차 산업 캐즘이 예상 외로 지속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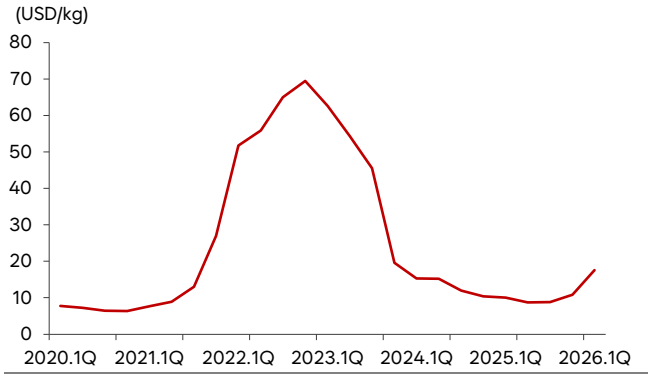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이차전지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ESS 수요 확대·광물가격 반등·중국 견제 강화 등은 업황 회복 트리거가 될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산업에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드리웠다. 전기차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기술이 어느정도 연동되고 유사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차 캐즘이 발현되며 스마트카, 자율주행 기술 발전, 이차전지 업황도 시장 기대보다는 느려지고 악화된 상황이다. 우려스럽게도 전기차 캐즘은 길게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수 완성차 기업들은 순수 전기차 제품 라인업 확대를 속도 조절하고, 하이브리드카를 늘리며 이른바 친환경차 확대 사업 기조는 유지하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안도 모색 중이다. 명백하게도 전기차 산업 확대는 2020년 이후 높아졌던 시장 기대 대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에 있다. 향후 전기차 산업 캐즘이 예상 외로 지속된다면, 엠플러스와 같은 이차전지 장비업체들의 실적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기차 산업 캐즘의 영향으로 이차전지 셀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실적 정체 내지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몇 가지 희망적인 사항도 2H25부터 일부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차전지 산업 내 긍정적 요소는 ESS 수요 증가, 이차전지 관련 광물가격 상승, 선진국의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견제 강화,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로봇) 관련 이차전지 수요 기대 확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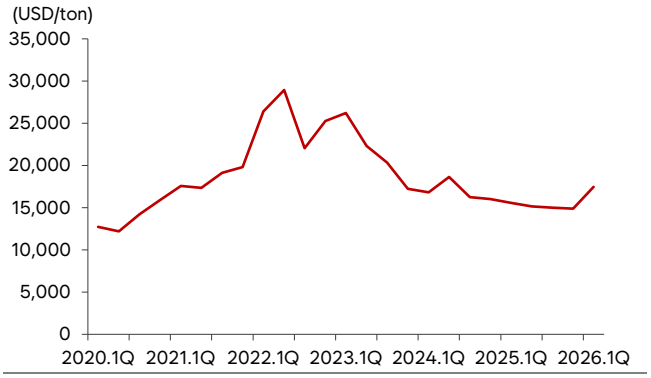
특히 2025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이차전지 관련 광물가격의 상승은 업황 개선 기대를 조심스럽게 불러오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니켈 등 주요 이차전지 광물 가격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조). 광물가격 상승은 이후 소재, 셀 등 제품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광물가격 상승은 일부 국가의 사업규제 강화나 업계 구조조정, ESS/로봇 분야 이차전지 수요/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에 기인한다. 금번 가격 상승이 아직 추세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나, 투자자들은 이차전지 업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광물가격 변화 정도를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리튬 가격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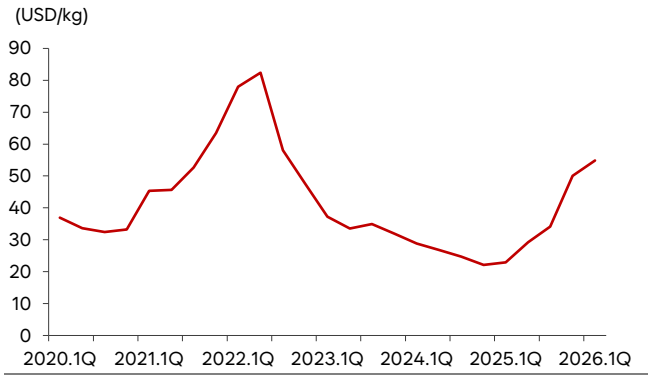
자료: KOMI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니켈 가격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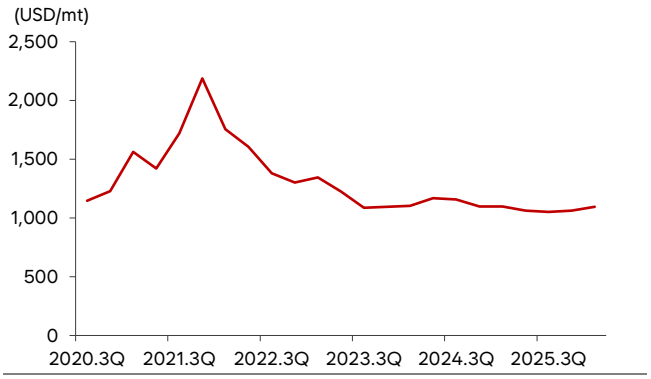
자료: KOMI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발트 가격 추이 및 전망



자료: KOMI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망간 가격 추이 및 전망



자료: KOMI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166	3,401	1,287	1,842	1,989
증가율(%)	52.5	191.6	-62.1	43.1	8.0
매출원가	1,127	2,998	1,039	1,453	1,550
매출원가율(%)	96.7	88.2	80.7	78.9	77.9
매출총이익	39	403	249	389	439
매출이익률(%)	3.4	11.8	19.3	21.1	22.1
판매관리비	138	164	148	143	168
판관비율(%)	11.8	4.8	11.5	7.8	8.4
EBITDA	-77	283	131	269	312
EBITDA 이익률(%)	-6.6	8.3	10.2	14.6	15.7
증가율(%)	적지	흑전	-53.8	105.9	15.7
영업이익	-99	239	101	246	271
영업이익률(%)	-8.5	7.0	7.8	13.3	13.6
증가율(%)	적지	흑전	-57.7	143.4	10.3
영업외손익	-111	-2	25	-11	-7
금융수익	83	86	115	92	90
금융비용	196	93	97	104	99
기타영업외손익	2	5	7	1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10	237	126	235	264
증가율(%)	적지	흑전	-46.7	86.1	12.4
법인세비용	-58	37	16	28	31
계속사업이익	-152	200	110	206	23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52	200	110	206	233
당기순이익률(%)	-13.1	5.9	8.5	11.2	11.7
증가율(%)	적지	흑전	-45.1	87.9	12.9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52	200	110	206	233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690	2,563	2,279	1,691	1,896
현금성자산	115	752	437	650	772
단기투자자산	17	139	231	221	238
매출채권	277	214	169	79	85
재고자산	2,010	1,127	1,125	551	595
기타유동자산	271	331	317	190	206
비유동자산	523	639	649	723	797
유형자산	351	431	533	549	617
무형자산	5	6	7	18	19
투자자산	18	5	20	63	69
기타비유동자산	149	197	89	93	92
자산총계	3,213	3,203	2,928	2,414	2,693
유동부채	2,291	2,396	1,661	1,140	1,208
단기차입금	408	222	385	163	163
매입채무	477	221	81	144	156
기타유동부채	1,406	1,953	1,195	833	889
비유동부채	358	66	421	254	274
사채	271	0	154	35	35
장기차입금	76	63	198	200	220
기타비유동부채	11	3	69	19	19
부채총계	2,649	2,461	2,082	1,394	1,482
지배주주지분	564	741	846	1,020	1,211
자본금	61	61	61	61	61
자본잉여금	298	298	317	301	301
자본조정 등	-15	-35	-45	-45	-4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2	2
이익잉여금	220	417	513	701	892
자본총계	564	741	846	1,020	1,211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60	1,106	-204	621	259
당기순이익	-152	200	110	206	233
유형자산 상각비	19	42	28	21	32
무형자산 상각비	3	2	2	2	8
외환손익	21	7	4	5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07	583	-444	364	-18
기타	156	272	96	23	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3	-214	-229	-95	-136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4	-67	-5
유형자산의 감소	1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4	-106	-126	-32	-100
기타	-90	-108	-99	4	-3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45	-252	113	-313	-1
차입금의 증가(감소)	151	-206	299	-187	23
사채의증가(감소)	400	0	-150	-98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12	-12	-24
기타	-6	-46	-24	-16	0
기타현금흐름	-5	-3	4	-1	0
현금의증가(감소)	66	637	-315	213	122
기초현금	49	115	752	437	650
기말현금	115	752	437	650	77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7.1	8.6	7.0	6.9
P/B(배)	2.1	1.9	1.1	1.4	1.3
P/S(배)	1.0	0.4	0.7	0.8	0.8
EV/EBITDA(배)	N/A	4.3	8.4	4.2	3.9
배당수익률(%)	0.0	0.9	1.3	1.7	2.6
EPS(원)	-1,249	1,629	894	1,689	1,928
BPS(원)	4,596	6,036	6,888	8,388	10,032
SPS(원)	9,563	27,686	10,482	15,079	16,462
DPS(원)	0	100	100	200	350
수익성(%)					
ROE	-28.1	30.6	13.8	22.1	20.9
ROA	-6.1	6.2	3.6	7.7	9.1
ROIC	-10.0	27.7	14.7	29.6	38.4
안정성(%)					
유동비율	117.4	107.0	137.2	148.3	157.0
부채비율	469.3	332.0	246.1	136.7	122.4
순차입금비율	131.5	-28.0	17.8	-28.7	-33.8
이자보상배율	-2.9	5.0	2.1	7.1	9.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1.1	0.4	0.7	0.8
매출채권회전율	5.5	13.9	6.7	14.9	24.2
재고자산회전율	0.8	2.2	1.1	2.2	3.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엠플러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3.26	엠플러스-사업 영역 확대를 모색하는 이차전지 강소기업
2025.04.24	엠플러스-캐즘 딛고 다시 성장
2022.03.24	엠플러스-성장은 아직도 시작단계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